

다윗 시리즈(11) “다윗과 시글락 사람들”

사무엘상 30:21-31

찬양: 아 하나님의 은혜로 (310 장/통 410 장)

1. 성도는 자신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다윗과 함께 한 400 명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빼앗겼던 것을 모두 되찾고 돌아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. 그럼에도 남아 있던 자들과 전리품을 못 나누겠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.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이루고 승리하게 된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행동이었습니다. 혹시 우리 삶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잊어버리고 실수한 경우가 없는지,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 나눠봅시다.

2. 성도는 ‘여호와께서...’를 고백하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. 전리품을 못 나누겠다고 불평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에게 다윗은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. ‘여호와께서...’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‘내가...’ 라는 교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. 당신의 삶에서 ‘여호와께서... 이루셨다’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?

3. 성도의 공동체의 삶은 나눔과 사랑입니다.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았기에 전리품을 남아 있던 자들과 모두 나누었습니다. 다윗의 공동체는 나눔과 사랑,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.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.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보세요.